

[Sincere Pride]

“ 그래서 어찌라고. ”

[외관]

어두운 남색 머리, 투명할 정도로 흰 빛의 눈동자를 지녔다. 머리스타일이 바뀌어 내려뚸은
머리에서 사이드테일이 되었다.

[이름]

남 여름 | 瀟 여름

[나이]

14세 / 1학년

[반]

달님반

[성별]

시스젠더 여성

[키&몸무게]

153cm 42kg

[성격]

“개 성격은 어떻게? 강산이 바뀌더라도 개는 절대로 안 변할걸?”

_결

A. 까다로운, 예민한, 직설적인

“어쩌라고.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안 궁금한데?”

털털해보이는 인상과 스포티브한 취미를 지닌 것에 비해 그의 성격은 불과도 같았다. 언제나 날이 서있는 상태에서 남을 대했으며, 사소한 것에도 시비를 걸며 감정적으로 행동했다.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려는 이들도 그의 성격에 질려 다시 멀어질 때가 잦았지. 가식이라곤 하나 없는 독설을 건네는 아이에게 그 누가 관심을 가지겠는가. 그의 반을 맡은 선생님 또한 성격을 조금 죽이고 다니는 게 어떻냐고 제안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없었다. 그저 입술만 비죽이고 고개만 숙일 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 전에 만났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이 누그러진 모습이 적잖게 보였다. 여전히 거친 성격으로 대하는 건 맞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이들에 비해서 편하게 대할 때가 있었으니. 이유는 없었다. 본인 또한 모른다고 일관할 뿐.

B. 이기적, 제멋대로인, 자기중심적

“오늘은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특별히 들어주도록 할까.”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되어서야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 시험 성적이 나와도 제 것을 몇 번이고 꼼꼼이 살핀 뒤에야 남에게 관심을 가질 정도로 모든 것들이 자기 위주로 돌아갔다. 때문에 그가 하는 생각들과 꺼내는 의견들은 심히 주관적이었으며 그 스스로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자신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옳지는 않지만 가장 일리있고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했을까.

중학교에 올라오면서도, 그러한 태도는 더더욱 심해졌다. 몇 년 전에도 다른 이들의 옳은 주장에 쉽게 인정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일이든간에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자신이 인정한 몇몇에게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아주 가끔.

—속

C. 약간의 상냥함, 정에 약한, 은근한 배려

“너가 좋아서 기억하는 게 아니야. 백 번 말하니까 어찌다가 기억하는거지.”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을 싫어한 적도 없었다. 상대가 하는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더 나아가 그들이 건네는 제안을 웬만하면 거절하지도 않았고, 정이 담긴 목소리를 듣고 흘리지도 못했다. 그렇게 냉혈한처럼 보이는 것과 달리 속은 꽤나 물렁했다.

이는 천부적인 그의 성격이었다. 외강내유인 모습까지 몇 년 전 만났던 얼굴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었으니. 그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면서 틈을 내주거나 미세한 정을 베풀때도 있었지. 자신의 기분이 좋을때만 그런다는 게 문제였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아예 안하던 이전과 달리 제게만 들릴 정도로 말하기도 했었다. 바로 앞에 있어도 들리진 않을 테지만, 이전에 비하면 많이 발전한걸까.

물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았다. 이는 그의 속내였고, 아직까지도 퐁퐁 싸매고 있었으니까.

[수호알 & 수호캐릭터]

수호알 원본



“여름아!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폭신폭신했던 밝은 금색의 머리. 아름다운 붉은색 눈. 그가 입고있는 옷은 흰 색이었지만 가끔씩
열은 분홍빛으로 빛나고 있었지. 어깨에 찬 것은 갑주로, 붉은 색 망토를 고정시켜주고 있었다.

누가 봐도 천사의 모습을 지닌 아이의 이름은 **리엘**. 여름의 수호캐릭터이자 조연자에 가까웠다. 여름을 보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이미지를 모조리 가지고 있는 아이였지. 누구에게나 착하고, 상냥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하는 아이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입에 매달았다. 성격 때문인지 험한 말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고로 좋아하는 음식은 슈크림 빵.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주인인 여름이다.

캐릭터인지를 하게 되면 머리에 천사링이 생기면서 리엘의 성격과 똑같아지게 된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원치않은 여름의 성격 탓에 처음 만났을 때를 제외하곤 캐릭터인지를 한 적이 없었지. 여름도 그것을 꺼린다.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기타]

0. 정보

1. 말투 : 누구에게나 반말을 사용한다. 상대가 저보다 나이가 한참 높은 사람이라면 모를까.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으면 딱딱하고 거친 어투의 반말을 이용했으며, 입이 상당히 험한 편이다. 욕이나 속어를 매일같이 사용한다고.

친하지 않은 상대에 한해서는 성과 이름을 함께 부른다.

2. 생일, 8월 26일.

3. 안 좋은 버릇이라곤 다 가지고 있다. 입술이 쉽게 건조해지는 나머지 튼 입술을 잡아 뜯기도 했으며, 언젠는 손톱을 물어뜯기도 했다. 평소에 축구하느라 부분, 특히 거즈 위를 계속 매만지기도 했으니.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버릇들을 하게 되었으니.

4. 특별한 별명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산 뒤로는 여름이라는 발음이 어려운 나머지, 나즈미(夏海)라는 이름을 하나 지어 알려준다고.

1. 한국

한국인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곳은 한국이었으며, 아주 어렸을 때에는 한국에서 거주했다. 허나 3살이 되던 즈음 일본으로 이민을 왔으며, 현재 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다더라. 문화 또한 한국보다는 일본이 익숙하다고 하며, 언어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편한 쪽을 골라보라면 망설임없이 일본어를 골랐었지.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을 말해보라면 이름이 고작이었다.

2. 꿈

그만 좀 물어. 꿈같은 거 없다고.

3. 호불호

스포츠, 쉬는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는 망설임없이 운동장으로 향했다. 누구보다도 운동을 좋아했고 사랑했다. 자신이 하는 것도 좋아했으며 보는 것도 좋아했기에 운동장이 비었든 꽉 차있든 자리를 잡고 그를 즐겼다.

때문에 그의 교복처럼 따라오던 트레이닝 복 바지가 언제나 가방 안에 자리했다.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로, 그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으며.

폰, 뭐하는가 싶어 그를 보면 항상 폰을 손에 들고있다. 취미 대신 폰을 보고 인터넷 서칭을 하며 하루를 보낼 정도였지. 가끔은 폰게임을 하는 그를 볼 수도 있었다.

매운 음식, 한국인이어서 매운 맛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아한다는 것에 가까웠다. 매운 재료가 잔뜩 들어간 한식부터 시작해, 중국 향신료까지 합해서. 때문에 멍멍하고 싱거운 음식은 그의 취향이 아니었다.

햇살, 그는 따뜻한 것을 좋아했다. 그렇기에 종종 창문에 기대 하늘을 바라보기도 했으며.

-

상냥한 친구, 정확히는 꺼려했다. 따스하고 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해오는 모습이 어색하고 어떤 말을 건네야 할 지 모르겠다고. 이전에도 그러한 성격의 이들을 자주 상처입혔기에, 보면서 저도 모르게 어색해진다더라.

높은 곳,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었다. 적당히 높은 건물이라면 모를까. 비행기 자체를 질색할 정도였다.

평소에는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없어 이런 면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4. 주변 평가

“여름아. 선생님은 네가 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6학년 담임 선생님의 평가

“야, 개 화내는 거 봤어? 진짜 미쳤다니까.”

중학교 입학식 날, 여름 옆에 서있던 동급생.

“다 무시하고 잊어버릴 것 같으면서 기억력은 좋더라고.”
5학년 2학기 당시, 그의 앞에 앉은 동급생.

“남 여름. 요주인물이야. 언제 어떻게 폭발할 지 몰라서.”
중학생 1학년이 되자마자 그와 대화를 나눈 동급생.

[선관]

[텍관]

[비공개란]

[비밀 설정]

[변신 스킬]

[방어형] :: Resista

빛으로 물든 대검을 이용해 상대의 공격을 막아낸다. 대검을 감싼 빛은 평소보다 방어력을 올려준다.

[스탯]

공격 : ★☆☆☆☆

방어 : ★★★★★

[성장 IF]

[성장 IF]

남 여름의 인생의 굴곡은 롤러코스터와도 같다. 그만큼 성격과 생각이 들쭉날쭉하게 바뀌었지.

~~초등학생 때, 그는 11살이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툰 편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해 아이들 사이에서도 잘 끼지 못하고 어울리더라도 어색하게 끼어있을 뿐이며, 그 어떤 일이 생기든간에 자기 자신이 우선시되어 이기적인 모습을 자주 비추었습니다. 허나 친구들과 어울리다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 하나가 그들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그 나이에 어울리는 관계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더 나아가, 꿈에 대해 명확성을 보이지 않던 그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서서히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공부, 등등 많은 것과 관련된 꿈을 떠올리는 동시에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떠올리고 그 스스로도 부정하며 누구에게도 말해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전혀 다른 생각을 부정하고 싶어하기에.~~

중학생이 되고나서도 초등학생 때와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남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주변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끔, 그가 친구라고 여기는 몇몇 이들에게는 약간의 아량을 베푸는 모습도 보이죠. 속으로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보다는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려 했으나, 자신의 이미지와 정반대인 수호알과 수호캐릭터의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때 은연 중에 깨달았던 되고 싶은 모습이 눈앞에 나타나니 믿고싶지 않은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숨기기도 합니다. 수호캐릭터는 여름이를 설득하며 도움을 주지만 그의 불신 때문에 결국 어색한 친구처럼 지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말하고 친구에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모습은 그에게 있어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속내와 똑같아 놀란 것과도 같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즈음, 그는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완전히 깨달았으며, 진심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거리낌이 약간 사라집니다. 이전에 비하면 조금은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툭툭대는 성격은 여전히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성격이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이젠 춘데레라고 불러도 괜찮을 정도의 성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모님께서 바빠지셔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점차 줄게 되고, 제 형제와도 가깝게 지내지 못하면서 그런 아쉬움과 애정을 친구들에게 갈구할 때가 늘어납니다. 짐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스스로 남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죠. X알을 퇴치하면서 나타난 앰브리오를 보며 미묘한 감각을 느끼는 것도 이 때 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그는 차가워진 성격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방어적이고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본래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상냥함과 정이 사라지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 움직이는 추한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남의 꿈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도 자주 드러납니다.** 하지만 말수가 크게 줄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아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면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꺼내는 말의 대부분은 **핑계에 가까운 거짓말**이며,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이스터에서 해왔던 일들이 온갖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다가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수호캐릭터와의 사이도 나빠지는데, 수호캐릭터는 **여름이가 되고싶은 모습**이기에 그가 바라는 욕심과 욕망, 간절함을 알고있어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안타까워하고 씁쓸해합니다. 때문에 캐릭터인지나 캐릭터 변신에는 무리가 없지만, 고등학생 때 썼던 몇 가지 스킬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러닝 IF]

캐릭터

여름이의 성격, 그리고 성향상 친구들이 함께 모여 대화하거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보다는 멀리서 지켜보는 역할로 동떨어져있어 다른 친구들이 어울리기 힘들어하지만, 대화를 할 때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관심과 여지를 남기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끝까지 성장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부분이며, 캐릭터 또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리드하거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가장자리에서 지켜보는 방관자 역할에 가깝습니다.

오너

캐릭터의 성격과 달리 오너는 모든 캐릭터와 교류할 예정이며, 여러 관계를 만들고 여름이의 결과 속을 다 드러내고 싶습니다. 또한, 성격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특히 조심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진영]

이스터 :: Easter

[진영 선택 사유]

“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돈, 명예? ...그래, 그런 것도 좋지만. 너희가 나를... ”

수호캐릭터가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그는 단순히 자신의 속에 꾹꾹 숨겨놓았던 진심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되고싶은 모습이라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일 뿐, **그가 되고싶은 모습은 생각보다 더 추한 모습이었다.**

그가 바라던 모습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 그리고 숨겨왔던 진심에는 오로지 순수하고 착한 것들만이 아닌 **오로지 제 욕망과 욕심을 채울 사리사욕 또한 자리했었다.** 보다 많은 돈을 원하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위에 있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기도 했었지.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갈구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좋아하기를 바라는. **다른 이들에게 부릴대로 부린 성질은 그들에게 미운 정이 담긴 시선이라도 받고싶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는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고 싶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부모님과 같이 있을 시간이 줄었기에. 겉으로는 가족을 한심하게 바라보더라도 속으로는 그들이 자신을 좋은 딸로 바라보기를 원했기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루기엔 너무 늦은 시기였다. 허나, **그 어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엠브리오라면 감정 하나 만들어내는 것 따위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기에.**

때문에 그는 모두에게 품었던 정을 애써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곤, **자신의 욕심에 침식되어 이스터에 들어갔다.** 순수하게 자신이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구해온 꿈의 주인들은 절대로 못 이루어주는 것이라며. 그러한 진심을 드러내는 제 모습에 스스로도, 수호캐릭터도 100%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은연 중에 바라왔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으니까. 거리낌없이 엠브리오를 찾아나서게 되었다.

[오너란]

[오너 년생 / 계정]